

글말교실 소감문

자신있게 말하고 정확하게 쓰는 방법을 배우다.

이번 학기 글말특강은 PD라는 꿈의 방향성을 잡아 준 내비게이션이었습니다.

글쓰기의 기본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생각을 조리 있게 말해야 글로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말하기'를 좋아하던 학생이었습니다. 돌아가신 할머니가 '5살 꼬마가 어른들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쉽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 종군기자 하면 딱이겠다.' 라고 이야기하실 정도로 어렸을 때부터 말하기에 자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농담 섞인 '기자'라는 직업은 학창 시절 '다큐멘터리 PD'의 꿈으로 이어졌고, 교지 편집 위원과 방송부장으로서는 착실히 활동하면서 국민대학교 사회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입학과 동시에 꿈에 그리던 교내 방송국에도 입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송국 기자로서 학교 소식을 취재하면서 처음으로 '말하기'가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교내 뉴스는 국민대학교 구성원에게 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형식적인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우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할 때도 틀에 맞춘 질문에 집중하며 딱딱한 분위기를 유지합니다. 궁금한 점은 태산이었지만, 혹여나 보도부장으로서는 예의에 어긋나거나 취재 의도와 맞지 않을까봐 하고 싶었던 질문과 대화를 삼갔습니다. 2년여간 30여 편의 학교 소식을 취재하면서 뉴스의 정확도와 완성도는 올라갔지만, 통통 튀던 말솜씨는 위축됐고 기자로서 자신감을 잃어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홈페이지를 살펴보다가 우연히 글말특강 공지를 보았습니다. 그때가 마침 6회차였는데 "대화의 수준을 향상 시키는 핵심 질문법"이라는 제목에 이끌려 곧바로 신청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자가 뉴스라는 틀 안에서 인터뷰이와 생생하고 깊이 있는 질문과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

그림 1 특강을 듣기 직전 공책에 적어둔 질문 (일부 캡처)

1시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생각의 터널이 뚫리는 것처럼 시원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손규리 교수님께서 가장 고민하고 있었던 부분을 꼬집어주셨습니다. ? 와 ! 의 차이로 시작해, 손실 회피 성향에서 오는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예의나 분위기, 구성원의 특성에 부담을 안고 "이런 건 물어보면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질문에 대한 편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질문을 하지 않으면 결국 배움으로도 이어질 수 없다고 조언해 주시면서, 수준 높은 질문과 대화 방법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특강이 마친 후 취재를 위해 한 학생을 인터뷰하러 가는 길, 교수님께서 강조하신 "호기심, 경청, 이해력, 상호작용"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인터뷰이의 말을 받아 적기 위해 들고 다녔던 공책은 잠시 내려놓고,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준비했습니다. 준비된 질문을 던지기보다, 둘만의 대화에 집중하며 자연스럽게 소통했습니다. 그렇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질문의 근육을 살피면서 30여 분간의 인터뷰를 만족스럽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짧은 문장 안에 독자에게 정확하게 요지를 전달할 수 있을까?

그림 2 특강을 듣기 직전 공책에 적어둔 질문 2 (일부캡처)

글말특강(7)

📌 댓글 추가

👤 이지연 교수님

강의 목표

- 공적 글쓰기에 필요한 문장의 기본
- 가독성, 전달력, 매력 있는 문장을 쓰는 법
- 좋은 문장을 쓰기 위한 글쓰기 연습의 비결

자연스럽게, 잘 읽히는 문장 쓰기

주어와 서술어가 매끄럽게 연결되는가

- '한쌍'으로 움직여야 한다.
- 나는 이번 학기 장학금을 받는 것이 목표이다. (X)
- 나는 이번 학기 장학금을 받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O)

문장의 길이가 짧고 메시지가 간결한가

- 군더더기를 없애자 : 지나치게 많은 수식어 or **중복 표현**

불필요한 명사 대신 동사를 사용했는가

- 명사형 표현의 남용을 피하고, (능)동사를 중심으로 문장을 구성하자
- 인간에 의해 초래된 생태계의 파괴로 자연의 본래적인 정화 능력이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 인간이 초래한 생태계의 파괴로 자연은 본래 지니고 있는 정화 능력을 서서히 잃어가고 있다.

:: 말하고자 하는 바가 확실한 문장 쓰기

힘을 주거나 뼈아픈 곳을 구분했는가

- 주장, 결론 - 이유 - 구체적 예시 - 재진술

묘묘한 표현 대신 구체적인 지시어를 사용했는가

- 공동체 생활을 저를 접하는 저에게는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갈등이 있었으나,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서로 협동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저를 의미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X)

어려운 말을 쓰고 있지는 않은가

- *학술적 글쓰기에서 전문용어 또는 신조어, 내가 임의로 규정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면 반드시 그 용어의 의미를 정확히 설명하여야 한다.

또 읽고 싶어지는 문장 쓰기

같은 어휘를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가

- 환경 문제는의 반복 (X), 환경문제는, 기후 및 생태계 보호, 환경과 관련된 문제들 (O)

객관적인 시각과 어조를 유지하고 있는가

규어체나 줄임말을 쓰고 있지는 않은가

문장 연습의 팁

- *독자의 입장에서 생각
- 문장은 독자에게 의미를 전달할 위해 쓴다
- 문장의 진짜 의미는 독자가 읽을 때 비로소 발생한다
- 문장은 필자의 의도와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다

그림 3, 4 7주 차 특강 필기본 (일부캡처)

자신 있게 말(대화)하는 방법을 터득한 후, 남은 2번의 강의에서는 글을 다듬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특히 이지연 교수님의 특강이 인상깊었습니다. 방송국에서는 빠르고 신속한 이슈를 학우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주로 스트레이트(4~5줄의 짧은 기사)를 쓰곤 하는데, 어떻게 하면 짧은 기사에 독자(혹은 청자)에게 정확한 요지를 담아 전달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지연 교수님의 조언에 귀기울여 불필요한 명사 대신 동사를 사용하고, 작성한 기사를 여러 번 읽고 반복해 고쳐 나가면서 문장력을 키워나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독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연습을 해 온 덕분에 더욱 간결하고 명확한 기사를 작성해 나가는 힘을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학기 글말특강은 방송국 기자로서 고민했던 부분에 대한 해결 뿐 아니라 'PD'라는 목표에도 소중한 단서가 되어주었습니다. 하나 아쉬운 점은 신청 기간이 지나면 강의를 듣지 못하기에, 저처럼 글말 특강의 존재를 늦게 알아차린 학생의 경우 따로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창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학부생이자 방송국원으로서 홍보에 나서겠습니다.

매 학기 새로운 주제로 개설되는 만큼, 내년에는 더욱 다양한 특강을 수강할 뿐 아니라, 1대 1 글말 코칭에도 참여해 교수님과 구체적인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공부해 나가려고 합니다. 자신 있게 말하고 글로 정확하게 표현해 사람들의 삶을 진득하게 녹여내는 PD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